

A MOREPACIFIC

HYANGJANG

AUGUST 2022 VOL.646

ALL ABOUT BEAUTY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할 뷰티 노하우

PRODUCT 황홀한 밤을 위한 향기

SPECIAL 애프터서머케어

MAKEUP PLAY 눈썹의 변신

- 02 NEWS
8월의 가장 핫한 뉴스
- 06 NEWS-TREND
물광이 돌아왔다
- 08 SPECIAL
애프터서머 케어
- 16 PRODUCT
황홀한 밤을 위한 향기
- 22 MAKEUP
메이크업과 서머 네일의 만남
- 28 MAKEUP PLAY
눈썹의 변신
- 30 FOCUS
설화수
- 32 FOCUS
설화수
- 34 FOCUS
프리메라
- 36 THIS MONTH'S PICK
헤라
- 40 ITEM
같이 쓰면 더 좋은 시너지 아이템
- 42 ZOOM IN
미스트, 전격 해부
- 44 ICON
8월의 인테리어
- 48 BODY
탄력 업 샤워법
- 50 HEALTH
Y존 건강관리
- 52 REVIEW
간간한 품평단의 꼼꼼 리뷰
- 54 PLACE
낮을 위한 와인 플레이스
- 56 EDITOR'S PICK
8월의 강추템



발행일 2022년 8월 1일
 발행 통권 646호
 발행인 안세홍
 편집인 홍재욱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제품 문의 080-023-5454
 제작 문의 뉴커머스 컨텐츠팀
 인쇄 (주)태신인쇄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이성진, 김희수
 디자인 펜타그램

SINCE 1958
 <향정>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5년간 646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MAIL
 HYANGJANG@MCKOREA.COM

WEB
 WWW.APGROUP.COM



COPYRIGHT 2022
 AMOREPACIFIC

※<향정>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매거진입니다.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MORE PACIFIC

Vintage Single Extract Essence Intense
Essence d'Extrait Vintage Unique Intense

HYANGJANG JOURNAL

editor KIM HEE SOO



20세기 초반 유럽과 미국 패션은 코르셋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딱딱한 금속으로 만든 코르셋으로 허리를 졸라매 비정상일 만큼 잘못된 형태로 만든 다음, 가느다란 허리와 상반되게 엉덩이에는 패드와 풍성한 레이스를 더해 볼륨감을 강조한 패션을 완성했다. 숨 쉬기조차 힘들던 코르셋 스타일은 점차 사회적으로 비난받았고, 마침내 코코 샤넬이 디자인한 실용적이고 편안한 패션의 등장으로 점차 잊히는 듯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란제리 패션과 Y2K 룩이 다시금 떠오르며 코르셋 스타일링이 점차 다시 트렌드 전면에 나서고 있다.

톰 포드, 스포트맥스, 펜디, 베르사체, 토리 버치 등이 특히 언급할 만하다. 이 중 톰 포드는 기존의 불편하고 답답한 코르셋과 다르게 금속 뼈대에서 영감을 얻어 원단에 빗살 무늬를 색다르게 접목했다. 단연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디자인이라고 할 만하다. 스포트맥스는 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시어한 룩을 선보였다.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도록 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동시에 코르셋 특유의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을 최소화했다. 펜디는 셔츠에 체크무늬 코르셋 디자인을 더해 페미닌한 오피스 룩을 완성하는가 하면, 그와 상반된 이미지인 브라운 계열 레더를 사용해 야성적인

CORSET SPIN-OFF : 페미닌한 스타일링에 실용성을 접목한 새로운 코르셋이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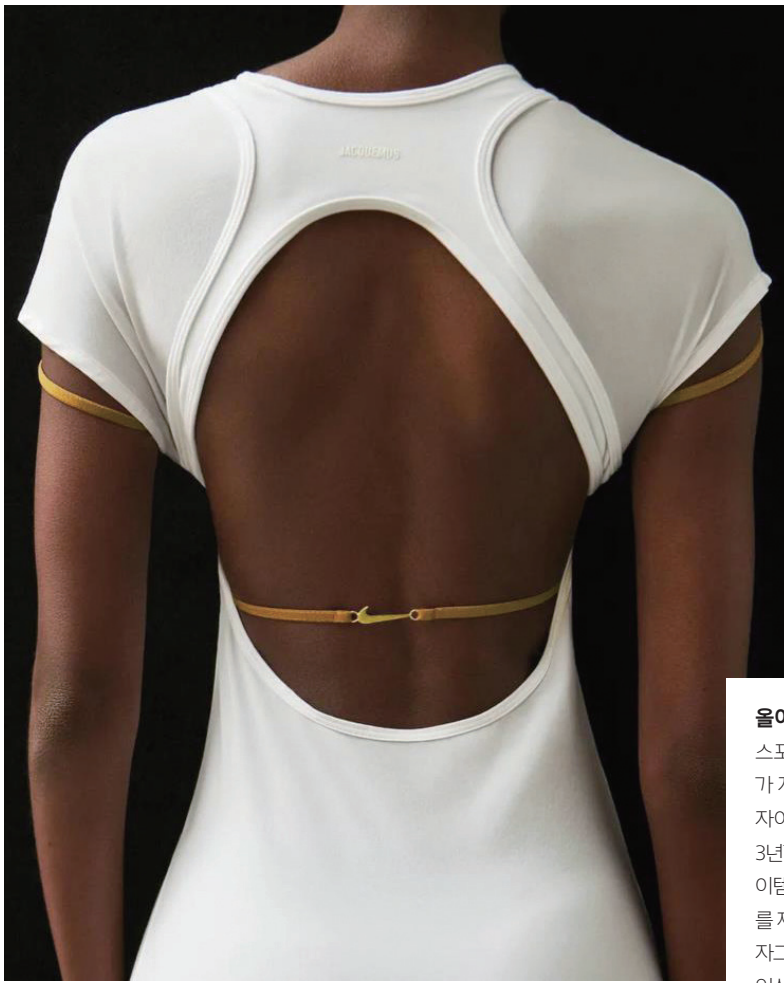


고 자유로워 보이면서도 잘록하게 떨어지는 허리 라인으로 관능미를 강조한 룩을 선보였다. 베르사체는 강렬한 레드와 이번 시즌 대표 컬러인 그린 색상으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시폰 소재와 빗살 무늬 디자인으로 허리 라인을 강조한 드레스가 눈에 띄었다. 토리 버치는 톱에 코르셋 형태의 가죽 벨트를 매 자칫 둔탁해 보일 수 있는 스타일을 과감하게 변주했다.

이번 시즌에는 전반적으로 스피노프 격인 코르셋 디자인을 통해 허리를 즐라매지 않고도 관능미와 우아한 바디라인을 살릴 수 있는 스타일링을 보여준다. 여성을 억압하던 코르셋은 현재 가장 힙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풍기는 관능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패션계에서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은 매년 반복되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재탄생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렇다면 페미닌하고 관능적인 코르셋 룩에는 어떤 메이크업이 어울릴까? 세미매트 제형의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으로 자연스러운 피부를 연출하고, 여기에 수수한 매력을 더해줄 과하지 않은 누드 톤의 립과 가볍게 음영을 살린 얼은 아이 메이크업으로 코르셋 룩 자체에서 풍기는 여성미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④**

PHOTOGRAPHY : WWW.GETTYIMAGESKOREA.COM, 슛플릭스, 라비, 보태가 베네티타, 신세계 L&C, 씨모스, 자크뤼스



올여름, 가장 뜨거운 콜라보레이션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여성복 브랜드 자크뫼스 가 지난 6월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을 선보였다. 디자이너 시몽 포트 자크뫼스는 이 컬렉션을 무려 3년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업을 진행한 아이템 중 가장 화제가 된 제품은 나이키의 '휴마라'를 재해석한 스니커즈. 가죽과 스웨이드로 제작해 자그마한 금색 나이키 로고로 포인트를 준 점이 인상적이며, 색상은 베이지와 브라운 2종으로 출시했다. 휴마라 외에도 플리츠스커트, 버킷 햇, 백리스 드레스 등으로 구성된 이번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은 6월 28일부터 자크뫼스 웹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다. 문의 자크뫼스(<http://www.jacquemus.com>)

HYANGJANG JOURNAL

운동러를 위한 텀블러

운동을 하면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의 양 때문에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운동 전후와 중간중간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효과를 극대화하는 요령이 있다. 운동 1시간 전 700~800mL, 운동 중에는 15분 간격으로 200ml 정도, 운동이 끝난 후엔 운동 전과 비교해 몸무게의 차이만큼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다. 이럴 때 오긴한 것이 텀블러지만 격한 운동을 하거나 급하게 물을 마실 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쏟아지거나 손에 쥐기 불편해 갖고 있어도 잘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써모스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운동 중 차가운 음료를 마시기에 적합한 빨대 달린 '슬림 스트로 텀블러'를 출시했다. 실리콘 빨대가 내장되어 있어 흘릴 염려 없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 450mL 용량에 무게 200g, 지름 6cm의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에 원터치 버튼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문의 써모스(1577-8396)



시즌 2가 기다려지는 넷플릭스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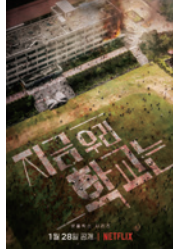
K-콘텐츠가 대세를 이루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순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세계 영상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를 따르면 이정재 주연 <오징어 게임>이 46일 동안 전 세계 1위를 달성하는가 하면, 웹툰 원작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은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콘텐츠의 국내외 팬층이 두꺼워지며 후속작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의 넷플릭스(080-001-9587)



<오징어 게임>
일대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은 지난 6월 13일 넷플릭스 SNS를 통해 시즌 2 제작 소식을 알렸다. 현재까지 이정재와 이병헌이 합류할 예정이다.



<스위트홈>
송강을 일약 스타로 만든 <스위트홈>도 시즌 2와 시즌 3의 제작을 확정했다. 시즌 2에는 오정세, 김무열, 유오성 등이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할 예정으로 밝혀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학교는> 역시 시즌 2 제작을 확정했다. 박지후, 윤찬영, 조이현, 로몬이 등장하는, 시즌 2 제작을 알리는 스페셜 영상을 공개해 기대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D.P.>
지금 가장 핫한 배우인 구교환과 손석규, 여기에 정해인까지 1편의 주요 출연진이 모두 등장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지진희와 김지현이 새로운 인물로 합류한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가방

이탈리아의 정성과 미감을 지향하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는 2022년 프리폴 컬렉션인 워드روب 04(WARDROBE 04)에서 '브릭 카세트' 백을 선보인다. 기존의 '카세트' 백을 더욱 넉넉한 세이프로 재구성해 실용성을 더했으며, 부드러운 몸체와 가벼운 무게감이 특징이다. 아이코닉한 인트레치아토 워빙 기법으로 완성한 몸체에 지퍼를 더해 캐주얼한 무드를 살렸다. 또한, 메탈 핀으로 스트립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옷차림에 맞춰 솔더백으로도 토트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블랙과 데님 두 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은 3백만원대다. 문의 보테가 베네타(02-3438-7682)

독일 프리미엄 필기구 라미

견고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을 갖춘 독일의 프리미엄 필기구 브랜드 라미에서 2022 스페셜 에디션 '룩스 만년필 & 노트 세트'를 출시했다. PVD 코팅 블랙 스틸 펜촉에 몸체와 동일한 컬러의 메탈 클립 등 소재의 색감을 살린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인다. 세트로 함께 구성된 노트는 FSC 인증 친환경 고급 사무아 종이를 사용해 잉크가 번지거나 비치는 현상이 적어 만년필 필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번 에디션은 콘셉트 숍과 교보문고 핫트랙스 매장, 라미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라미(02-2192-9661)



비건 와인의 탄생

지속 가능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비건 제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뷰티와 패션은 물론이고 식품도 선택의 폭이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전세계 L&B는 2009년 법인 출범과 동시에 론칭해 출시 5년 만에 누적 판매량 2백만 병을 돌파하며, 국내 와인 시장의 대중화를 이끈 와인 브랜드 'G7(지세븐)'을 비건 와인으로 리뉴얼해 선보인다. 주조 단계에서 달걀흰자, 우유 단백질 카세인, 동물의 콜라겐에서 얻은 젤라틴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비건 와인으로 엄격하고 까다로운 유럽 비건 인증 브이라벨을 획득했다. 문의 신세계 L&C(010-4010-1807)

매끄러운 무결점 베이스 메이크업

실크처럼 매끄럽고 쫘득한 느낌부터 촉촉하고 고급스럽게 빛나는 물광까지. 마무리감은 달라도 결점 없이 깨끗하고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이 백스테이지를 장악했다.

photographer CHOI MIN YOUNG(제품)
editor KIM HEE SOO



헤라
실키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
SPF20/PA++
30g, 6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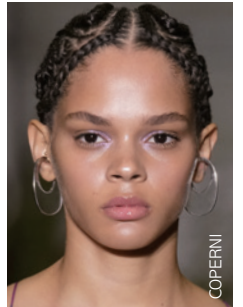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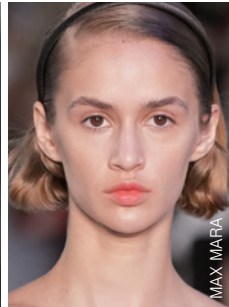


마스크 오프 시대가 열렸다. 그동안 마스크를 쓴다는 핑계로 베이스 메이크업에 소홀했다면 이제 다시 실기한 피부결을 드러내야 할 때. 2년 여간 메이크업을 자주 하지 않은 탓에 어떻게 해야 할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베이스가 돋보이는 백스테이지 메이크업에 주목하자.


먼저 화제가 된 막스마라 쇼에서는 아이 메이크업을 절제해 눈썹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민낯 같은 맑고 투명한 피부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혈색을 돋우는 코랄 빛 입술을 더해 청초한 느낌을 살렸다.

한편 마스크를 쓰는 동안 엄두도 낼 수 없던 광채 메이크업도 서서히 시도하는 추세다. 다만 실내외를 오가며 마스크를 수시로 쓰고 벗게 되는 만큼 마스크에 베이스 메이크업이 묻어나지 않도록 밀착력 있게 겹겹이 쌓아 올리는 것이 포인트다. 발렌시아가와 펜다는 섬세한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매끄러운 무결점 피부를 표현하는 동시에 이마와 콧날, 광대뼈, 턱 끝에 빛을 입히는 광채 메이크업을 선택했다. 중요한 점은 얼굴 전체가 번들거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하





는 부위만 하이라이팅 효과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메이크업은 코페르니 쇼에 선 모델의 얼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커버로 잡티와 홍조, 붉은 기 등 결점을 최소화하고, 피부를 균일하게 정돈한 점이 눈에 띈다.

여름이라고 무조건 매트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선택하는 시대는 지났다. 얇고 자연스러운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피부를 화사하고 생기 있게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한 가지 제품을 두껍게 바르면 피부가 답답해 보이고 메이크업이 겹칠 수 있는데, 이럴 때 효과적인 제품이 바로 프라이머다. 헤라의 에어리 파우더 프라이머를 메이크업 시작 단계에 발라보자. 기초 화장을 끝낸 상태에서 파우더리한 프라이머를 가볍게 쓸듯이 얹으면 고운 입자가 마치 불려 처리한 듯 매끈해 보이는 효과를 선사한다. 게다가 수분감을 머금은 채 촉촉하고 부드럽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베이스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 바르면 컨실러를 여러 번 덧바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탄탄하게 자리 잡힌다. 프라이머와 함께 사용하기 좋은 제품은 헤라의 실키 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이다. 피부 톤을 세밀하게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컬러가 준비되어 있으며, 가볍고 섬세한 텍스처가 피부를 실키하게 만들어준다. 정교한 입자가 마치 원래 피부인 듯 주름과 모공 사이에 촘촘히 밀착해 윤기 나는 피부결을 표현하는 데 제격이다. 





늦여름, 오히려 좋아

영원히 찾아들 것 같지 않은 더위도, 사람을 미치게 하는 습기도
한 달만 지나면 자취를 감출 것이다. 가을과 겨울, 아름다운 나를 기대하며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늦여름을 즐기고 정성껏 나를 가꿔보자.

photographer CHOI MOON HYUK(인물), JUNG J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1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외선과의 전쟁

지난 2년여 동안 마스크 뒤에 잘 숨어 있던 피부가 자외선과 직접 맞닥뜨린 이번 여름,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잡티가 자리 잡지는 않았는가. 잡티는 한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1년 내내, 특히 강렬한 여름의 햇볕이 한풀 꺾이는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는 철저한 예방만이 살 길이다. 고압게도 자외선 차단은 기본이고, 초미세먼지나 블루라이트 등 도시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거나 톤업으로 화사하게 빛나도록 해주는 등 기술적으로 한 차원 진보한 자외선 차단제가 많으므로 원하는 기능성 제품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바를 때는 외출하기 30분 전, 2시간마다 덧바르기라는 정석을 따르자. 평소 땀이 많은 편이라면 좀 더 자주 덧바르고,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도 얇게 바르는 메이크업 제품만 발라서는 충분히 차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을 하는 날에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꼭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야 한다.



1. 헤라 UV프로텍터 톤업 SPF50+/PA++++

자외선과 도시 유해 환경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바르자마자 피부 톤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생가톤업 선크림. 50ml, 4만원.

2. 헤라 UV 프로텍터 멀티디멘션스 SPF50+/PA++++

UVA, UVB, (초)미세먼지, 블루라이트, 적외선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광노화를 막아 건강하고 윤기 나는 피부로 가꿔주는 촉촉한 수분 선크림. 50ml, 4만원.

#2

피부는 아직도 목마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부는 조금씩 메말라가고 있다. 이런 건조 증상을 간과할 수 없는 건 수분 부족이 노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게다가 더 건조한 환경과 가을이 기다리고 있으니, 여름내 메마른 피부를 충분히 적셔 다가올 극한의 건조를 이겨낼 힘을 길러야 한다. 단지 피부 속으로 수분을 밀어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분이 피부 속에 오래 머무르며 더 건조해지지 않게 막아주고, 건조해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며,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게 힘을 길러줄 제품을 고르자. 토너부터 바뀐 세안 직후부터 피부가 건조해질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 자음유액 퍼펙팅
진정과 보습 효과의 5가지 원료를 배합하고, 여성에게 유익한 약재 추출 성분을 더해 피부를 건강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베스트셀링 듀오. 자음수 퍼펙팅 150ml, 6만8천원. 자음유액 퍼펙팅 125ml, 7만2천원.



프리메라 미라클 씨드 에센스
연꽃에서 얻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어떤 자극에도 무너지지 않는 힘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워터 에센스. 강력한 수분 충전, 진정 효과로 피부 속 깊숙이 보습해준다. 160ml, 4만7천원.



#3

보기 싫은 흔적까지 지우는 클렌징

자외선 차단제는 낮 동안 피부를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자칫 피부를 괴롭히는 자극이 될 수 있다. 색조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날에도 클렌징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더구나 메이크업을 했다면 땀과 피지에 뒤엉킨 메이크업과 먼지까지 더해져 자극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결국 자는 동안 재생해야 할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해 컨디션이 엉망이 될 수 있으므로, 여름에는 특히 잘 지우는 데 신경 쓰자. 피부를 깔끔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늘어난 멜라닌 색소를 컨트롤하고 각질까지 없애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 줄 클렌저라면 더할 나위 없다.



헤라 헬라솔브 프로그램 딥 클렌징 폼
셀룰로오스 비드와 풍성한 거품이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 묵은 각질과 먼지까지 제거해 피부를 화사하게 가꿔준다. 200g, 3만5천원.



#4

주름 관리는 확실하게

자외선은 잡티뿐 아니라 주름까지 늘릴 수 있어 더 위험하다. 가을이면 안티에이징이 더욱 주목받는 것도 지나긴 여름내 강렬한 자외선에 자극받고 메마른 피부에 주름이 잘 생기는 탓이다. 그러나 가을이 오기 전부터 미리미리 주름 관리에 돌입하는 것이 현명할 터. 주름 개선에 특화된 성분인 레티놀을 함유한 스팟 케어 제품이면 더욱 효과적이다. 다만 레티놀은 성분을 안정화하기 힘들어 끝까지 신선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을 잘 골라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함량 역시 중요하다. 함량이 지나치게 낮은 제품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과도하게 높은 제품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오랜 연구를 기반으로 최적의 상태로 들어 있는 제품을 찾아야 한다.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1% & 0.3%

28년에 걸친 레티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 세럼. 0.1%는 눈가, 팔자주름 등 피부가 얇은 부위의 주름이 고민인 레티놀 입문자에게, 0.3%는 이마 등 피부가 두꺼운 부위의 주름이 신경 쓰이거나 모공이 늘어지기 시작한 레티놀 고수에게 알맞다. 레티놀 포 링클 0.1% 30ml, 9만원. 레티놀 포 링클 0.3% 20ml, 13만원.

#5

지친 몸과 마음 힐링하기

마지막으로, 길고 괴로웠던 여름을 견디느라 고생한 몸과 피부를 달래주자. 피부를 위해서는 피부 속 깊이 충분한 보습과 영양 성분으로 가득 채우고 노화에 견딜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안티에이징 라인이 제격이다. 안티에이징 제품은 텍스처가 묵직해 바르기만 해도 땀이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텍스처가 가볍고 산뜻하면서도 영양분을 충분히 함유한 제품을 잘 고르는 헤안이 필요하다. 지친 체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건 단연 홍삼과 녹용, 떨어진 몸속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 전반적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앰플만 챙기다면 아직 남은 여름과 기운을 잃기 쉬운 환절기, 그리고 가을까지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1. 바이탈뷰티 명작수축

엄격하게 선별한 뉴질랜드산 녹용과 대지의 기운을 품은 홍삼, 인체에 유효한 성분을 풍부히 함유한 인삼 열매 추출 성분을 함께 담아 우리 몸의 생명력을 일깨우는 프리미엄 앰플. 750g(25g×30앰플), 45만원.

tip

내 손만으로도 예뻐지는 여름 마사지 비법 3

#1 더위에 지쳐 더더진 순환을 촉진해 독소를 배출하는 마사지

귀 아래쪽을 여러 번 둥글리면서 마사지한 뒤 목을 타고 내려와 쇄골의 파인 부분을 꼭 눌러 지압한다. ▶ 손바닥 전체로 턱에서 목까지 아래쪽으로 쓸어 내린다. ▶ 손가락을 이용해 턱 중앙부터 관자놀이까지 천천히 쓸어 올린다. ▶ 콧방울에서 관자놀이까지 쓸어 올린 뒤 쇄골까지 쓸어 내린다.

#2 칙칙해진 피부 톤을 밝히는 마사지

페이스 라인, 특히 정수리와 관자놀이를 누르며 지압한다. ▶ 눈썹 앞머리, 관자놀이, 콧방울, 인중, 턱 중앙을 지압한다. ▶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귀 앞부분까지 반원을 그리듯 쓸어준다. ▶ 눈 위와 아래를 모두 마사지한다. ▶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데운 뒤 얼굴을 감싸고 바깥쪽으로 쓸어준다.

#3 에어컨 바람 때문에 생긴 부기를 가라앉히는 마사지

눈 아래 라인을 따라 약지로 지압한 뒤 살짝 두드려준다. ▶ 눈동자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을 지그시 누른다. ▶ 검지, 중지, 약지 끝으로 피부를 살짝 꼬집어 당기며 눈 밑부터 관자놀이까지 자극한다. ▶ 이마, 관자놀이, 양 볼, 입 둘레, 턱, 목 순으로 살짝 아픈 느낌이 들 정도로 꼬집는다.

2. 설화수 진설수 & 진설유액

적소에서 얻은 성분을 기본으로 하는 안티에이징 라인, 메마른 피부를 촉촉하게 적시고 충분한 영양 성분을 더해 피부의 힘을 끌어올리는 제품으로, 여름에 쓰기에 부담 없는 텍스처가 특징이다. 진설수 125ml, 12만5천원. 진설유액 125ml, 14만원.



한여름 밤의 꿈

끈적한 기운을 날려버리고,
저녁 시간을 황홀하게 만들어줄 바디 케어 아이템.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KIM HEE SOO



헤라 벨벳 나이트 퍼퓸드 샤워 젤 & 바디 로션

피부결을 벨벳처럼 부드럽게 가꿔줄 퍼퓸드
바디 라인의 샤워 젤과 바디 로션. 한여름
밤의 끈적한 기운을 날려줄 몽환적이고
매혹적인 향이 매력으로, 마치 향수를 뿌린
듯 아이리스, 바이올렛, 머스크, 베르가모트
향이 조화롭게 퍼진다. 샤워 젤은 작은 입자가
포함된 형태로 순하고 샤워 후 산뜻하며
향기로운데, 바디 로션과 레이어링하면
향이 더욱 오래간다. 바디 로션은 부드럽게
스며드는 촉촉한 타입으로, 자연 유래
원료를 사용해 다채로운 향은 물론
성분의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헤라 벨벳 나이트 퍼퓸드 샤워 젤, 270ml, 4만7천원.
헤라 벨벳 나이트 퍼퓸드 바디 로션, 250ml, 5만원.

#센슈얼한플로럴향
#황홀한바디케어
#부드러운벨벳피부

VELVET
NIGHT
Perfumed Body Lotion

HERA

헤라 지일 블루밍 퍼폼드

샤워 젤 & 바디 로션

정열적이고 신비로운 향으로 온몸을 감싸고
싶다면 지일 블루밍 샤워 젤과 바디 로션이
제격이다. 매혹적인 머스크 베이스에
그린 플로럴 계열의 싱그러운 향이 더해졌다.
샤워 젤은 촉촉한 거품이 풍성하게 일어
깨끗하게 세정해주면서도 샤워 후 피부가
땅기지 않고 부드럽게 유지된다. 바디 로션은
오일과 시어버터 성분으로 이뤄져 텍스처가
진하고, 보습 장벽을 형성해 메마른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준다.

헤라 지일 블루밍 퍼폼드 샤워 젤, 270ml, 4만7천원.
헤라 지일 블루밍 퍼폼드 바디 로션, 250ml, 5만원.

#잠재된관능미

#신비로운매혹

#살내음





Z E A L

*Blooming
Perfumed Body Lotion*

HERA

구말 파리 페뉴 드스와레 샤워 오일. 250ml, 6만5천원.
구말 파리 페뉴 드스와레 바디 크림. 190ml, 12만원.

#매혹적인향기
#그녀의이브닝드레스
#파리지앵욕실



구달 파리 메뉴 드스와레 샤워 오일 & 바디 크림

매혹적인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파리지영
그녀의 달콤한 유혹의 향기를 담은
배스&바디 컬렉션. 슬러한 오일 제형의
샤워 오일은 식물 유래 글루코사이드를
함유해 풍성한 거품을 형성하며,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문지르며 씻어내면
자극 없이 촉촉한 보습막을 형성해
준다. 실키한 제형의 바디 크림은
피부에 사르르 녹아들며 보습효과와
부드러운 사틴 마무리감을 선사하고,
아이리스&레드프루트가 조화를 이룬
우아한 향기를 피부에 남긴다. ⑦



SORED

가장 인기 많은 네일 컬러는 단연 레드! 단, 여름에는 주홍빛이 가미된 레드 계열 컬러를 선택해야 더워 보이지 않는다. 또 강렬한 컬러의 매니큐어를 바를 땐 컬러가 강한 색조 메이크업은 피하는 것이 좋으므로, 입술에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422 란제리처럼 누드 톤의 MLBB 컬러를 바른다.

HOT NAILS FOR SUMMER

바캉스 준비의 마무리는 네일아트. 여름 휴양지의 기분을 한껏 느끼게 해줄 네일 패턴을 공개한다.

photographer CHOI MOON HYUK editor CHOI HYANG JIN



BLUEWAVE

손톱이 큰 편이라 비비드한 컬러를 손톱 전체에 바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패턴을 활용해 컬러의 비중을 줄여보라. 추천하는 패턴은 물결무늬. 휴양지 바다의 파도를 연상시켜 여름 네일아트로 딱이다. 이때 눈에 음영을 더하는 정도로 끝내 색조 메이크업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SYRUP NAIL

최근의 네일 트렌드는 투명 젤을 도통하게 얹는 시럽 네일. 투명하기 때문에 화려한 패턴을 선택해도 과해 보이지 않으며 젊고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입술에 헤라 센슈얼 프레쉬 립 오일 #002 노 네임을 듬뿍 얹어 투명하게 연출하면 손톱과 잘 어울린다.

FUNNY GRAFFITI

시럽 네일과 함께 MZ세대가 열광하는 네일 패턴은 펜으로 장난치듯 그린 일명 낙서 네일. 어떤 무늬를 그릴지 고민할 필요 없이 짧은 손톱에 선 하나, x표 하나만 그려도 시크해 보인다. 헤라 센슈얼스파이스 누드 글로스 #382 레드 라이를 발라 번진 듯 연출한 립 메이크업과 블러셔로 색조 메이크업을 하고 선글라스를 쓰면 20년은 어려 보일 것이다.



RAINBOW NAIL

몇 년 만에 떠나는 여름휴가,
유니크한 네일 패턴을 찾고 있다면
다양한 컬러를 섞고 프렌치 네일과
폴 보디 네일을 조합한 이 패턴에
주목할 것. 콧잔등부터 얼굴에
넓게 블러셔를 바르고, 입술에는
헤라 루즈 홀릭 #100 소울 핑크를
바르면 바로 쿨한 서머 룩 완성!

MODEL: LULU, MAKEUP: JAMIE YOON, KIM DONG HYUN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NAIL ARTIST: KIM SU JI



GALAXY NAIL

휴양지에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은하수처럼 영롱한
그라데이션 네일에 주목할 것. 비비드한 컬러와 화이트, 핑 등을 활용하는 패턴으로 완벽한 풀 메이크업부터
피부가 그대로 드러날 듯 투명한 메이크업까지 두루 잘 어울린다.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볼드하거나 희미하거나

한 올 한 올 결을 살린 질고 풍성한 눈썹이 여전히 강세지만,
한편으로 엄색해 어리하고 순수해 보이는 눈썹 또한 주목받고 있다.

LOOK
1

BOLD EYEBROW

브로우 라미네이트를
한 듯 눈썹 한 올 한 올 결을
살리면서 진하고
도톰하게 연출하는 볼드
아이브로우는 별다른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이목구비가 살아나는
효과를 준다.

STEP 1

깨끗한 마스크라
브러쉬로 결을 살려 눈썹을
세심하게 빗는다.

STEP 2

아이브로우 펜슬로 눈썹 위아래에
선을 부드럽게 잡는다.

STEP 3

펜슬을 세워 눈썹의 빈 부분에 한 올
한 올 심듯 그려 넣는다.

POINT



헤라 브로우 디자이너
오토 펜슬, #33 브라운,
0.3g, 1만8천원.

LOOK
2

LIGHT
EYEBROW

최근 캔달 제너를 비롯해 제니, 현아 등이 선보이며 최신 유행으로 급부상 중인 연한 눈썹. 눈썹을 염색하거나 탈색하는 경우 얼굴이 전체적으로 밋밋해 보일 수 있으므로 스모키아이 등 눈매를 살리는 강렬한 메이크업을 추천한다.

STEP 1

펜슬 아이라이너로 눈을 뿡돌려 라인을 그린다.

STEP 2

아이섀도 틱을 이용해 라인을 부드럽게 퍼뜨려 소프트한 느낌의 스모키 아이를 완성한다.

STEP 3

눈썹은 아이브로우 섀도나 연한 펜슬을 이용해 형태만 잡는다.

POINT



1

2

MODEL: KIM ROSA, MAKEUP: JAMIE YOON, KIM DONG HYUN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헤라아이 디자이너
펜슬. #01 블랙, 0.13g,
3만2천원.



백자 모티프로 다시 태어난 국민 에센스

출시 25주년을 맞은 설화수의 베스트셀러 윤조에센스가 한국적 미감을 대표하는 조선 백자를 모티프로 다시 태어났다. 군더더기 없는 고상함과 소박함, 여유로운 삶의 모습을 담은 설화수 윤조에센스 백자 에디션을 만나보자.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설화수

윤조에센스

1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담은 특별한 패키지

설화수의 베스트셀러이자, K-뷰티의 시작이자 상징인 설화수 윤조에센스가 출시 25주년을 맞아 특별한 패키지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내놓았다. 군더더기 없는 고상함과 소박함, 여유로운 삶의 모습 등 한국적 미감을 대표하는 조선 백자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아트 오브제, 백자 에디션이 그 주인공.

2

피부 생태계 지휘 요소를 강화하는 자음단™

피부 생태계 지휘 요소를 피부 아래 우주처럼 긴밀하게 연결된 피부 자생 생태계의 중심으로 피부 건강에 중요한 요소. 설화수의 안티에이징 황금 비율 공식으로 탄생한 자음단™이 피부에 닿는 순간 빠르고 깊숙이 흡수되어 이 피부 생태계의 지휘 요소를 강화한다.

3

다시 되찾는 건강한 윤기

세안 직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가장 깨끗한 피부 상태에 처음 바르는 퍼스트 에센스인 설화수 윤조에센스를 꾸준히 사용하면 건강한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발현되는 윤기를 되찾을 수 있다.

POINT 1

소장가치 있는
리미티드 백자 에디션

POINT 2

피부 생태계
지휘 요소 강화

POINT 3

은은하게 발현되는
피부 윤기

COMMENT

“한국 대표 에센스와
한국 대표 문화재의 만남,
적극 찬성한다!
기능성이야 명불허전!”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간결하고 유려한
라인과 단아한 디자인,
뽀얀 컬러까지
예뻐 소장 욕구가 솟는다.”
-〈마리끌레르〉뷰티 에디터 김상은



설화수윤조에센스
백자 에디션
한국 전통문화의
상징인 백자를 모티프로
한 패키지로 출시된
윤조에센스 25주년 에디션.
120ml, 17만원.



● 설화수 상백크림 No.2 밀키 톤업 SPF50+/PA++++. 톤업 효과로 피부가 화사해지는 동시에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가볍고 산뜻한 텍스처의 자외선 차단제.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지성 피부를 가졌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단계부터 톤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알맞다. 50ml, 8만5천원.

● 설화수 상백크림 No.1 크림 글로우 SPF50+/PA++++. 자외선을 비롯한 유해 환경 자극을 철저히 방어하고 피부를 편안하게 지켜주는 저자극 브라이트닝 선크림. 풍부한 보습감이 느껴지는 촉촉한 텍스처로 피부가 건조하거나 민감할 때, 광채 피부를 연출하고 싶을 때 추천한다. 50ml, 8만5천원.



편안한 유해 환경 방어막

자외선과 미세먼지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편안하게 지켜주고, 화사한 톤 업 효과를 선사하는
팔방미인 선크림을 만나보자.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POINT 1

미세먼지 차단,
피부 진정, 브라이팅
효과까지 한번에

POINT 2

피부가 숨 쉬는 듯
편안하고
가벼운 사용감

POINT 3

자연스러운
톤 업 효과

설화수

상백크림

①

유해 환경 방어막

SPF50+/PA++++에 달하는 강력한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생활 자외선부터 휴양지 등의 강한 자외선까지 모두 효과적으로 차단해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방어막을 형성해 초미세먼지(PM2.5) 등
유해 환경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No.2 밀키 톤 업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까지 갖췄다.

②

피부 진정 방어막

설화수 상백크림의 핵심 성분은 상백매, 상삼자, 백삼다당체, 오매,
황금으로 구성된 상백단™이다. 자외선뿐 아니라 각종 유해 환경에 노출된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며 열 자극을 비롯한 각종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켜준다.

③

브라이팅 방어막

설화수 상백크림은 피부 밝기를 개선하고 멜라닌세포를 줄여바를수록
피부가 맑고 화사해지는 브라이팅 효과를 볼 수 있다. 촉촉한
광채 피부를 원하면 No.1 크리미 글로우, 피부 톤 업을 원하고 블루라이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사람이라면 No.2 밀키 톤 업이 알맞다.

COMMENT

“무겁거나 끈적이는 느낌이 전혀
없어 후덥지근한 여름에도 그만이다.
메이크업이 뭉치거나 눈이 시린
현상이 없는 점에도 한 표!”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현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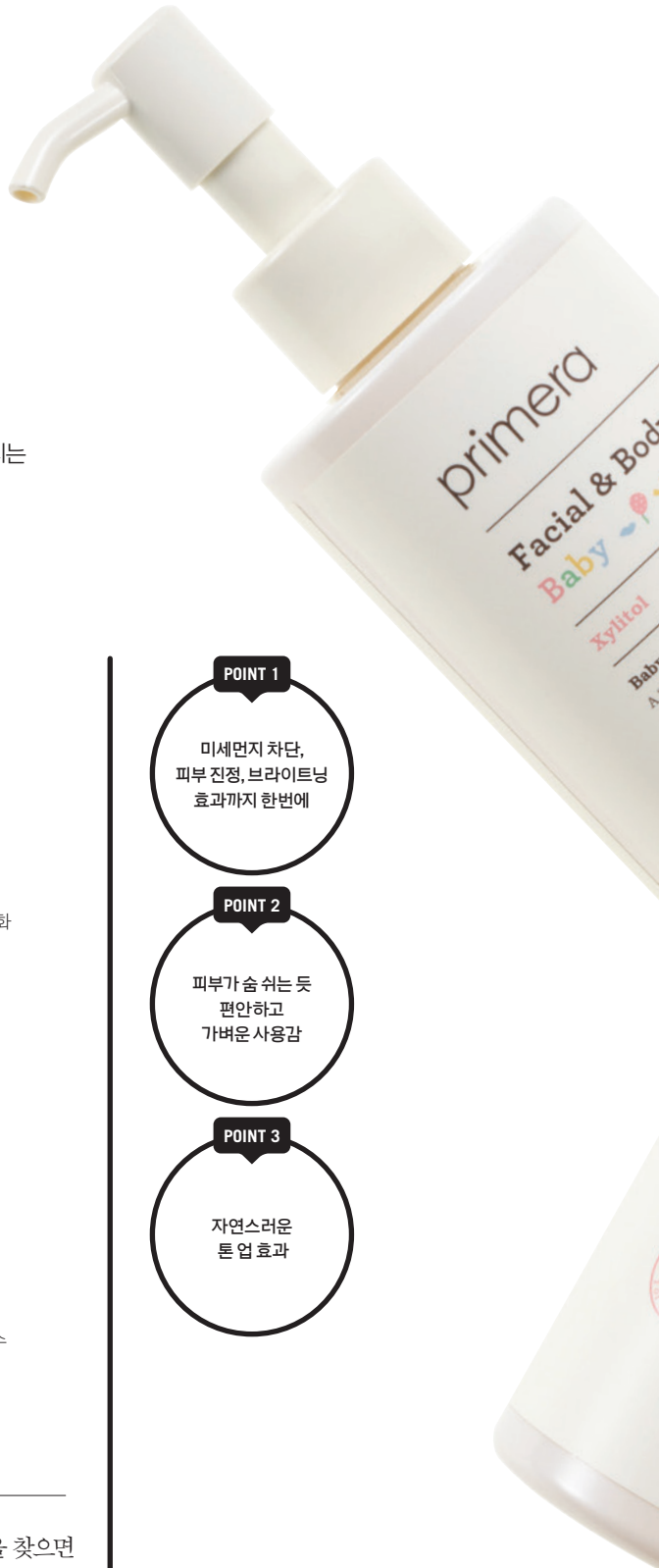
“밀키 톤 업의 경우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지 않아도 피부
톤을 화사하게 보정해줘 데일리
제품으로 그만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아영

내 아이에겐 순한 탐투토 워시

내 아이의 피부에 직접 닿는 거라면 더 순하고 더 효과 좋은
제품을 찾는 것이 당연지사. 프리메라 베이비 페이스 & 바디 워시는
부드럽게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제품이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프리메라

베이비 페이스 & 바디 워시

1

유아의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보습 성분

프리메라 베이비 페이스 & 바디 워시는 PEG 계면활성제나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아 아이 피부의 노폐물을 순하게 제거해준다. 이와 더불어 자일리톨과 코코넛 오일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고, 목화 추출물이 외부 환경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준다.

2

부드럽고 촉촉한 리퀴드 젤 텍스처

거품이 잘 일어나는 리퀴드 젤 텍스처의 워시라 적은 양으로 피부 노폐물은 물론 얼굴과 몸에 바른 선크림까지 부드럽게 씻어낼 수 있으며 씻고 나도 피부가 촉촉하다.

3

10-프리 안심 포뮬러

동물성 원료, 광물성 오일,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인공 향,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합성색소,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트리에탈올아민, 실리콘 오일, PEG 계면활성제 등 유해성 논란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 믿을 수 있으며, 안점막 자극 대체 테스트, 하이포 알러지 테스트,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해 안심하고 쓸 수 있다.

COMMENT

“아이 둘을 프리메라 제품으로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 안심하고 계속 쓰게 된다.”

-<마리끌레르> 뷰티 디렉터 윤휘진

“친구들이 좋은 유아용품을 찾으면 항상 추천하는 제품이다. 성분부터 소비자의 리뷰까지 모두 높은 평가를 받는 제품이기 때문.”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미경

POINT 1

미세먼지 차단,
피부 진정, 브라이트닝
효과까지 한번에

POINT 2

피부가 숨 쉬는 듯
편안하고
가벼운 사용감

POINT 3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



프리메라 베이비
 페이스 & 바디 워시
 선크림과 피부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해 유아의
 피부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전신세정제.
 안정막 자극 대체 테스트,
 하이포 알러지 테스트,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해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
 250ml, 2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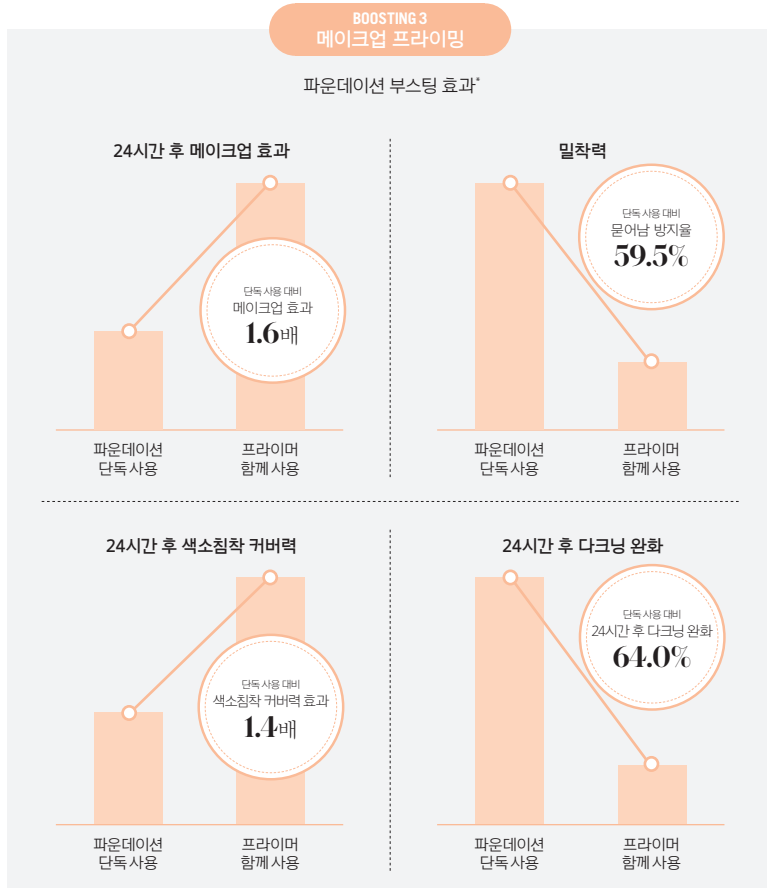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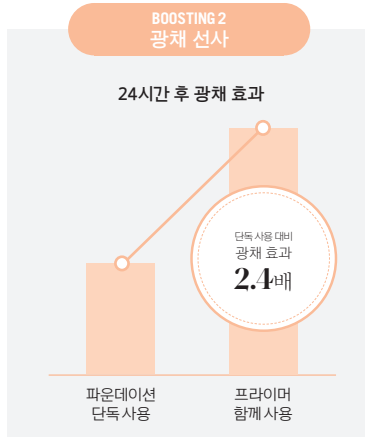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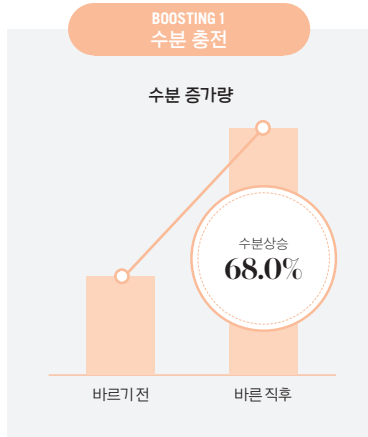
더 아름다운 피부로 완성하는 파운데이션 자석

시간이 지날수록 들뜨고, 모공과 잔주름 사이에 끼는 것도 모자라 마스크에 지저분하게 묻어나는 베이스 메이크업 때문에 고민하는가? 그렇다면 다음 단계의 메이크업을 더 예쁘게 연출해주는 헤라 하이드레이팅 래디언스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헤라 하이드레이팅 래디언스 프라이머의 메이크업 부스팅 효과* 인체적용시험결과

*헤라 실키 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 21N1 바닐라와 함께 시험한 결과
임상기관명: (주) 글로벌의학연구소 센터 대상: 만 25~40세 여성 30명 (33,400 +/- 4,910세)
시험기간: 2022년 6월 20일 ~ 6월 24일



파운데이션 유목민?

아직도 피부에 꼭 맞는 파운데이션을 찾기 못해 이런저런 파운데이션을 시험해보고 있다면 베이스 메이크업의 방법을 의심해볼 때. 전문가에게 메이크업을 받을 때처럼 베이스 메이크업에 시간과 공을 들이면 이런 현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시간과 스kill이 부족한 것이 현실. 헤라 하이드레이팅 래디언스 프라이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구세주 같은 제품이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바르기 전에 이 제품을 얼굴에 얇게 바르는 것으로 피부 결을 촉촉하고 매끈하게 연출해주고, 피부 톤을 화사하게 보정해주는 것은 기본. 마치 자석처럼 파운데이션을 피부에 밀착시켜 베이스 메이크업의 지속력까지 높여주는 만능 아이템이 바로 헤라 하이드레이팅 래디언스 프라이머다.

더 예쁜 베이스를 위한 필수템

수분 공급, 광채 증가, 밀착력 강화. 헤라 하이드레이팅 래디언스 프라이머의 핵심 기능은 이렇게 세 가지다. 먼저 마치 수분 크림을 바른 듯 산뜻하고 촉촉한 수분감의 비밀은 히알루론산이다. 헤라 하이드레이팅 래디언스 프라이머에는 분자량이 서로 다른 다양한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 피부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고 우수한 보습 유지력을 자랑하는 자일리톨 성분이 함유되어 촉촉한 수분감이 오래 지속된다. 광채의 핵심 성분은 미세간섭필 보라, 파랑, 초록 컬러 조합의 미세 사이즈의 펄이 피부의 노란기를 보정해 칙칙한 기운 없이 화사하게 피부 톤을 보정해줄 뿐 아니라, 피부에 자연스러운 조명 효과로 윤기를 더해준다. 하이드레이팅 래디언스 프라이머의 또 다른 장점은 자연스러운 내추럴 베이지 톤업으로, 본래의 피부 톤을 보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차분한 광채를 선사한다. 시중의 로지 톤업이 부담스러웠거나, 백탁이나 피부 들뜸이 우려되어 톤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던 고객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렉서리한 베이지톤의 프라이머다. 마지막 핵심 기술은 밀착력과 지속력 향상. 두께감이 얇은 필름포머와 오일의 조합이 쫀쫀한 마무리감의 화장막을 형성하여, 마치 양면 테이프를 붙인 듯 다음 단계 메이크업의 밀착력과 지속력을 높여준다. 헤라 실키 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과 함께 사용하면 최근 유행하는 내추럴하면서도 완벽한 실크 광채 피부를 손쉽게 완성할 수 있다. 당당하게 마스크를 벗고 싶다면 이 베이스 듀오의 힘을 빌려보길.

예쁜 피부 표현을 위한 짝꿍 아이템

베이스 makeup의 밀착력을 더욱 높이고, 은은한 속광을 살려 입체감 있는 예쁜 피부결로 연출해주는 2스텝 makeup 루틴을 소개한다.

STEP 1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 바탕 다지기

기초 스킨케어를 마친 피부에 헤라 하이드레이팅 래디언스 프라이머를 얇게 바르는 것만으로도 한결 촉촉하고 매끈하며 화사한 피부로 완성할 수 있다.

헤라 하이드레이팅 래디언스 프라이머 SPF30/PA++
수분감이 풍부한 글로우 텍스처가 다음 단계 makeup을 더 예쁘게 연출해주는 결 프렘 프라이머. 수분을 듬뿍 머금은 듯한 제형이 건조하고 거친 피부결을 1차로 매끄럽게 정리해주고, 은은한 미세펄이 함유된 베이지 글로우 제형이 2차로 피부결을 예쁘게 연출해준다. 이와 더불어 makeup 프라이밍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의 밀착력과 지속력을 높여준다.
35ml, 5만5천원.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시험 대상: 만 20~35세 성인 여성 31명. 시험 기간: 2021년 12월 13일~17일. 시험 기관: (주)글로벌의학연구소



STEP 2

무너짐 없이 예쁘게 지속되는 베이스 makeup 완성하기

헤라 하이드레이팅 래디언스 프라이머를 바른 얼굴에 헤라 실키 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을 가볍게 바르는 것만으로 모공과 잔주름, 거친 피부결이 매끈하게 정돈된 베이스 makeup을 완성할 수 있다.

헤라 실키 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 SPF20/PA++ 하루종일 처음 화장 그대로 가볍고 편안하게 유지되는 파운데이션.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 속은 촉촉하지만 겉은 화사한 피부가 24시간 유지된다. 30g, 6만8천원.

이런 사람에게 추천

CHECK 1

자연스러우면서 예쁜 피부 화장을 원하는 사람

CHECK 2

전문가 못지않게 완성도 높은 베이스 makeup을 원하는 사람

CHECK 3

트렌디한 베이스 makeup을 원하는 사람

더 예쁜 피부 만들기

더 매끈하고 섬세한 피부 표현을 위한
헤라 하이드레이팅 래디언스 프라이머 바르는 법.



STEP 1

헤라 하이드레이팅 래디언스 프라이머를 콩알만큼 덜어 양쪽 뺨에 콕콕 찍은 뒤 뺨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 바른다.

STEP 2

이마 중앙에 프라이머를 살짝 묻힌 뒤 가로로 퍼 바른다.



STEP 3

손가락에 남아 있는 양으로 콧등과 콧날에 세로 방향으로 바른다.

STEP 4

눈가에 프라이머가 얼룩지지 않도록 위에서 아래로 가볍게 퍼 바른다.



STEP 5

눈두덩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얇게 바른다.

STEP 6

콧방을 옆에 뭉치지 않도록 살짝 돌려 퍼 바른다. 마지막으로 얼굴 전체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려 완벽히 밀착시킨다.





좋은데 더 좋아

완벽한 것 같은 스킨케어 제품도 좋은 짝꿍을 만나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최고의 궁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짝꿍템을 찾아서.

photographer CHOI M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설화수 진설수

부드럽게 피부를 감싸듯 스며들어 피부결을 정돈하고 촉촉하게 가꾸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토너. 125ml, 12만5천원.



설화수 진설유액

피부의 생명력을 강화하는 적소에 함유자유를 더해 피부를 건강하고 매끄럽게 가꾸주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에멀전. 125ml, 14만원.

진설수 + 진설유액

같은 라인의 스킨케어 제품을 쓰는 데는 분명 장점이 있다. 성분이나 텍스처가 유사해 바르기 쉽고, 서로 유효 성분의 흡수를 촉진하도록 고안된 경우가 많기 때문. 특히 피부를 촉촉하게 적셔 다음에 바를 에멀전의 유효 성분을 더욱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다지는 토너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 유효 성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에멀전은 같은 라인의 제품을 쓰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설화수의 진설수와 진설유액이 환상의 짝꿍으로 손꼽히는 이유도 그 때문. 적층에서 얻은 피부 생명력 강화 안티에이징 성분을 기본으로 하는 진설 라인 중에서도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진설수와 윤택한 피부로 가꾸주는 에멀전인 진설유액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일컫는다.



헤라 UV프로텍터 톤업 SPF50+/PA++++ 자외선과 도시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화사하게 가꾸주는 생기 톤업 선크림. 50ml, 4만원.



헤라 멜라솔브 프로그램 딥 클렌징 폼 셀룰로오스 비드와 풍성한 거품이 피부를 맑게 가꾸고 화사하게 밝혀주는 브라이트닝 클렌징 폼. 200g, 3만5천원.

UV프로텍터 톤업 + 멜라솔브 프로그램 딥 클렌징 폼

잡티 예방의 시작은 내게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것. 매일 부담 없이 쓸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자외선 차단제를 찾고 있다면 헤라의 UV 프로텍터 톤업을 권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미백과 주름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다 초미세먼지와 블루라이트 등 도시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도 갖췄다. 피부가 화사하게 빛나는 톤업 효과는 덤이다. 낮 동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완벽히 보호했다면, 집에 돌아온 뒤에는 헤라의 멜라솔브 프로그램 딥 클렌징 폼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말끔히 지우고 피부를 화사하게 가꿀 타이밍. 셀룰로오스 비드와 부드러운 거품이 피부를 맑게 가꾸주는 브라이트닝 클렌징 폼으로, 자외선 차단제나 먼지 등 피부에 자극을 줄 성분을 씻어내고 불필요한 각질도 제거해준다.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싱글 엑스트랙트 에센스 인텐스
100일 자연 발효 숙성 치료 완성된 100% 향산화 진액을 담은 속 영양 안티에이징 에센스. 120ml, 17만원.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싱글 엑스트랙트 앰플
100일 자연 발효숙성 까멜리아의 강력한 생명력을 담은 100% 향산화 원액 앰플. 30ml, 14만원.

빈티지 싱글 엑스트랙트 에센스 + 빈티지 싱글 엑스트랙트 앰플

제주 만수림 까멜리아의 100% 향산화 원액을 그대로 담아낸 빈티지 앰플은 폭발적인 향산화 효능으로 피부 컨디션을 회복 시켜주고, 즉각적인 수분 공급과 장벽 강화로 타고난 듯 윤기 있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한다. 그 자체로도 물론 만족스럽지만, 빈티지 에센스와 만나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빈티지 에센스 인텐스는 필수 영양소가 강화된 100% 향산화 진액으로, 발효차의 귀한 카테킨과 프로비타민 B를 풍부하게 담아낸 진액을 피부 각질층 10층 속까지 깊고 빠르게 채워주어 피부 속 수분유지력을 길러주고, 피부 치밀도, 탄력, 결까지 개선한다. 자연 발효숙성과 독자적인 추출법으로 완성된 두 제품의 강력한 향산화 효능은 핵심 노화 요소를 깨어 해 피부 속부터 탄탄하고 젊어 보이는 피부를 완성시켜준다.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보습 성분과 영양 성분을 풍부히 함유해 피부를 오랫동안 촉촉하게 가꾸주는 영양 보습스킨. 150ml, 6만8천원.



설화수 자음유액 퍼펙팅
부드럽게 스며들어 장시간 피부를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영양 보습 에멀전. 125ml, 7만2천원.

자음수 퍼펙팅 + 자음유액 퍼펙팅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은 뭔가 다르다. 보습 스킨 카테고리에서 방문판매 6년 연속 1위를 차지한(KANTAR, 방문판매 경로, 보습 스킨 시장 구매액 조사, 2015~2020년 기준) 설화수의 자음수 퍼펙팅과 같은 기간에 보습 로션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한 설화수의 자음유액 퍼펙팅이 좋은 예가 될 터. 핵심 성분은 설화수 한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자음보습단™. 진정과 보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다섯 가지 원료를 황금 비율로 배합한 성분으로,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를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촉촉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텍스처의 환상적인 궁합 역시 오래 사랑받는 비결 중 하나. 빠르게 퍼지고 흡수되는 자음수 퍼펙팅과 부드러운 감촉의 크림미한 자음유액 퍼펙팅은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쓰기 좋다.

물 마시듯, 미스트

더워서, 귀찮아서, 땀이 나서
스킨케어 몇 단계 건너뛰는 당신.
목마른 피부를 위해,
부디 미스트만이라도 꼭 챙기길.

photographer CHOI M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귀찮은 여름. 자칫 스킨 케어에도 소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설 새 없이 땀이 흐르고 피부 표면이 기름으로 번들거리기 때문에 피부가 촉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큰 오해. 땀이 줄줄 흐르는 통에 피부 속은 더 메말라가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더 바르기는 귀찮을 때, 미스트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듯 피부가 조금이라도 건조하게 느껴질 때마다 미스트를 뿌리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미스트를 곁에 두고 수시로 뿌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마도 미스트의 효과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거나 미스트를 뿌릴수록 피부가 더 건조해진다는 오해 때문일 터. 메마른 입술에 침을 발라도 금세 다시 건조해질뿐더러, 오히려 그 전보다 입술이 더 바짝 마른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미스트가 피부

속 수분을 앗아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는 질 나쁜 제품을 제대로 뿌리지 못해 생기는 것. 피부 보습 효과가 탁월한 성분으로 제대로 만든 미스트를 골라 잘 뿌리면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은 물론 피부 장벽까지 튼튼해진다.

미스트는 피부에 즉각 수분을 공급하는 보습제의 일종이다. 뿌리자마자 순간적으로 피부 온도를 낮춰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어 여름에 더없이 반가운 제품이다. 하지만 물을 주성분으로 하고 보습 성분을 충분히 함유하지 않은 미스트는 피부 속 천연 보습 인자와 결합한 뒤 증발하며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미스트를 아무리 자주 뿌려도 피부가 건조하다면 보습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한 제품이나 정제수 대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특수한 물을 베이스로 한 제품을 고를 것.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빠르게 휘발되는 알코올 성분이 든 제품은 절대 금물이다. 피부에 자극을 주는 성분은 빼고, 진정이나 안티에이징 효능을 지닌 성분을 더했다면 금상첨화. 프리메라의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미스트는 리코리스와 서양 딸기 잎에 마데카소사이드를 결합한 하이드로 임팩트 솔루션™으로 길고 오래 가는 보습 효과를 자랑한다. 피부 진정과 장벽 강화 효과가 뛰어난 피토스테롤, 피부를 진정시키는 마데카소사이드 같은 성분은 더하고, 동물성 원료나 파라벤 등 유해 성분은 처방하지 않아 자극을 줄이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든다. 아모레퍼시픽의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는 정제수 대신 녹차세포수™와 첫물 녹차를 함유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젊음의 에너지를 더해 피부의 톤, 탄력, 보습 상태를 모두 개선한다.

내 피부에 적합한 제품을 골랐다면 올바르게 뿌릴 차례. 얼굴에서 15~20cm 거리를 두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뿌리는데, 너무 가까이에서 뿌리면 입자가 뭉쳐 피부에 잘 흡수되지 않고, 너무 멀리 떨어뜨려 뿌리면 입자가 피부에 충분히 닿지 않을 수 있다. 또 강하게 분사되는 미스트는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안개 분사 형태의 제품을 고르는 편이 바람직하다. 뿌린 뒤 깨끗한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 흡수시키면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도 건조하다면 보습 제품을 덧바르는 것도 좋다. 수분이 빨리 증발할 수 있는 띄약벌 아래보다는 그늘에서, 건조한 곳보다는 조금 습기가 있는 곳에서 뿌리는 편이 낫다.

스킨케어 단계에서부터 미스트를 활용한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가꿀 수 있다. 미스트를 욕실에 두고 세안 직후에 뿌리는 것이다. 세안 후 3초가 지나면 수분이 급속도로 증발하기 때문에 세안 직후 모공이 닫히기 전에 미스트를 뿌리면 피부가 좀 더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된다. 스킨케어 단계 사이사이에 미스트를 뿌려 보습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세럼을 바른 뒤 미스트를 뿌리고 그 위에 크림을 바르는 식. 스킨케어 제품의 밀착력이 높아지고 피부도 한결 촉촉해진다. 메이크업 전후에 뿌리면 파운데이션을 포함한 메이크업 제품과 피부 사이의 들뜬 공간을 수분으로 채워 메이크업의 밀착력과 지속력이 높아진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장 화장대는 물론 가방 속에 미스트를 챙겨야 하는 이유다. **TIP**



1.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 첫물 차수의 생명력을 담은 강력한 보습효과로 피부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에센스 미스트. 200ml, 12만원.
2.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미스트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촉촉하게 수분을 채워주는 미스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120ml, 2만5천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만

색색의 소품과 집 한가운데를 차지한 거대한 홀바. 신혼부부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꽉 채운 집은
사랑스러운 두 사람을 꼭 닮았다.

photographer HAN DONG WON
editor LEE SUNG JIN



콘크리트가 연상되는 그레이 컬러의 거대한 흙바. 스케일이 남다른 데다 '알당이 카페' 바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감각적인 포스터까지 붙어 있는 터라 흙바를 촬영한 곳이 주거 공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흙바는 부산의 한 젊은 신혼부부 집 거실 한편에 당당히 놓여 있다.

"남편이 커피에 진심이에요.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예전엔 부산 서면에서 카페도 운영했어요. 카페 브랜딩 작업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전 여행하기보다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집순이인데, 저 역시 카페에 가는 건 너무 즐거워요. 가끔 서울에 가면 전시를 보고 카페에 가는 일정을 반복하죠. 하루에 카페 서너 군데에 들르는 날도 많아요." -김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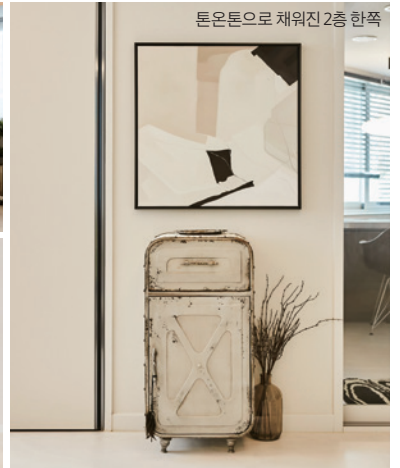
거실 한가운데를 넓게 차지하는 거대한 흙바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김시영의 친정아버지와 막가구 디자인을 시작한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것. 규모와 시설로 보나 디자인 면에서나 어느 카페 못지않다. 앞에는 두 사람이 운영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이름과 두 사람이 만날 때를 레터링으로 장식하고, 구입한 포스터와 직접 만든 포스터로 나머지 공간을 채웠다. 그라인더와 에스프레소 머신, 저울, 드리퍼 모두 카



@dung.dung.dungs

김시영·신현승

지난해 11월에 결혼한 스물여덟 살 동갑내기 신혼부부, 디자이너 브랜드 알당이(ALDUNG)를 운영하며 브랜딩 작업을 병행하다 최근 디자인 가구 브랜드 레드브라운을 론칭했다. 둘 다 흙카페와 소품 수집에 진심인 편.



페를 운영했던 노하우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고른 것이고, 평소 즐겨 마시는 원두 종류만 해도 몇 가지나 된다. 심지어 커피 찌꺼기를 버리는 넛박스는 매립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커피를 사랑하는 신현승은 틈 날 때마다 거기 서서 커피를 내리곤 한다. 남편의 취애 장소가 흙바라면, 아내가 가장 애끼는 장소는 소파가 있는 창가 자리. 특히 직접 만든 타일 선반 위에 식물을 놓아둔 부분은, 지금 생각으로 평생 그렇게 두고 싶을 정도로 애정이 간다. 비단 그의 눈에만 예쁜 건 아닌지, 이 집을 본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도 바로 그 타일 선반에 대한 정보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직접 만든 데다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단다. 사실, 두 사람이 만든 가구는 이것만이 아니다. 곳곳에 보이는 컬러풀한 목가구와 인터뷰를 나눈 물결 형태의 식탁

모두 두 사람이 직접 만든 것. "처음에는 원래 개를 붙인 것 같은 식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 음식을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은 데다 아주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앉으면 거리가 너무 가까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식탁을 새로 만들었어요. 지하에 디자이너이신 장인어른의 공방이 있어서, 거기서 목공 작업을 배우며 원하는 것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신현승

이들 부부는 가구를 직접 만들어본 노하우를 기반으로 얼마 전 가구 브랜드도 론칭했다. '이 공간에 어떤 가구를 놓아볼까?' 하는 고민이 생기면 낙서하듯 스케치를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나누며 디자인을 완성한다. 직접 써보며 불편한 점은 보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 때문일까? 이들이 만든 가구는 디자인이 독특하고 컬러도 튀지





은 그레이 컬러 일색이다. 넓은 거실을 차지한 소파와 가구는 물론, 주방과 강아지를 위한 가구까지 모두 무채색으로 채워져 있다. 신혼 부부의 집이 힙한 미국 아티스트의 공간 같다면, 부모님의 공간은 세련된 베를린 디자이너의 집 같다. 오래된 건물의 독특한 구조가 아니었으면 같은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질적이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김시영은 컬러에 멧힌 한을 풀 듯 파스텔컬러와 사랑에 푹 빠졌다가, 대학에 진학한 뒤에는 비비드한 원색에 마음을 빼앗겼다. 혼자 컬러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한다. 이런 극명한 취향 차이 때문에 김시영이 주방 가구는 노랑으로, 주방의 벽면은 초록으로, 블라인드는 주황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친정어머니는 깜짝 놀라셨다. 수많은 컬러와 컬러풀한 소품이 혼재함에도 이 집이 어지러워 보이지 않는 것은 모두 두 사람의 정교한 디자인적 계산 덕분일 것 같아 이

에 대해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사뭇 의외다. 김시영은 사실 소품을 선택할 때 깊이 고민하는 편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마음을 빼앗겨 구매 후 적당한 자리를 찾아 놓은 것이 많다고 한다. 판매하는 물건이 대부분 1천~2천원대인 다이소에 가서도 종종 5만원 넘게 쇼핑한다는 그는 마음에 드는 소품이



만 불편하거나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삶 속에 컬러나 디자인을 녹여본 노하우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혼집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소파 위에 걸린 거대한 상들리이다. 주거 공간에 걸기에는 크기가 다소 큰 데다 컬러풀해서 인상 깊었는데, 예전에 카페를 운영할 때 지인에게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집으로 가져왔다고 한다.

“저도 원래 화이트 인테리어를 선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던 카페를 화이트로 채웠죠. 그런데 조명이 밝을 때 눈이 아픈 데다 현실적으로 청소하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이사 올 때는 베이지와 그레이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정된 밝은 그레이 컬러로 벽과 바닥을 채웠어요. 여러 그레이 컬러 중 가장 실버와 가까운 이 색이, 제가 좋아하는 컬러풀한 소품은 물론 최근 유행하는 모듈형 가구와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김시영

김시영은 컬러에 진심이다. 튀는 색을 선호하지 않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컬러를 향한 갈망이 생긴 것 같다고 한다(가장 싫어하는 색이 차콜 그레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부모님 덕



라면 어디든 둘 곳이 생긴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알록달록한 소품을 향한 애정은 당분간 식지 않을 것 같으니 이사 가게 되더라도 이렇게 온갖 색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 거라며 웃어 보인다.

다소 이른 나이에 결혼했기에 자연스럽게 이곳은 아직 미혼이거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 친구들이 모이는 아지트가 됐다. 비단 두 사람의만의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공간을, 그리고 분위기를 나누는 데 익숙한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일 터. 이곳을 찾아오는 친구들을 위해 기계이 김시영은 음식을 만들고, 신현승은 커피를 내린다. 예쁜 소품들도 친구들과 곧잘 나눈다. 그 덕분에 처음엔 놀러 와서 디자인에 감탄만 하던 친구들은 이제 이 집의 편안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또다시 찾아온다. 두 사람의 신혼집이 웬만한 카페보다도 예뻐 보이는 것은 남다른 감각도 감각이지만, 아마도 두 사람의 사랑과 친구들이 채워준 우정 덕이 클 것이다. ⑩



김시영·신현승이 말하는 소품 배치 노하우

1. 베이스는 심플하고 깔끔하게

비비드한 컬러의 소품이나 가구가 많을 경우 벽까지 컬러풀하면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거실이나 방의 벽은 그레이 톤으로 하고, 소품을 많이 두지 않는 주방에만 컬러를 활용한 것도 이 때문. 컬러 소품이 많은 편이라면 벽면은 화이트나 그레이 등 깔끔한 컬러로 통일하는 편이 낫다.

2. 비비드한 컬러는 보색을 활용

비비드한 컬러의 소품은 채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비슷한 색끼리 모아놓으면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 있다. 이럴 때 보색대비를 활용하면 어색한 느낌을 상쇄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볼 것. 파스텔컬러 소품을 색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두면 무난하게 조화를 이룬다.

3. 생활 속에서 본 컬러 조화를 기억해두자

예쁜 컬러 조합을 생각해내기 어렵다면 주변을 한번 둘러볼 것. 단호박의 노랑과 초록, 당근의 주황과 초록 등 주변의 흔한 채소와 과일 등에서 의외로 예쁜 컬러 조합을 발견할 수 있다.



탄력을 높이는 샤워 방법

연일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자꾸만 늘어나는 샤워 횟수. 여름철 잦은 샤워, 이대로 괜찮을까? 잦은 샤워로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어가는 보디 피부 때문에 걱정이라면 샤워와 동시에 피부 탄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자.

photographer CHOI MIN YOUNG(제품)
editor KIM HEE SOO

하루에 한 번 이상 샤워하지 않는다

보통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두 차례 샤워를 하지만,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되면 찝찝하고 피부가 끈적이는 통에 서너 번씩 하게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주 샤워할 경우 피부 마찰과 바디 케어 제품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피부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 제거되며 피부가 손상된다. 특히 피부 보호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강한 알칼리성 제품을 자주 사용하면 피부 손상이 더욱 가속화된다. 샤워 젤을 사용하는 샤워는 하루 한 번 정도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물로 간단히 씻어내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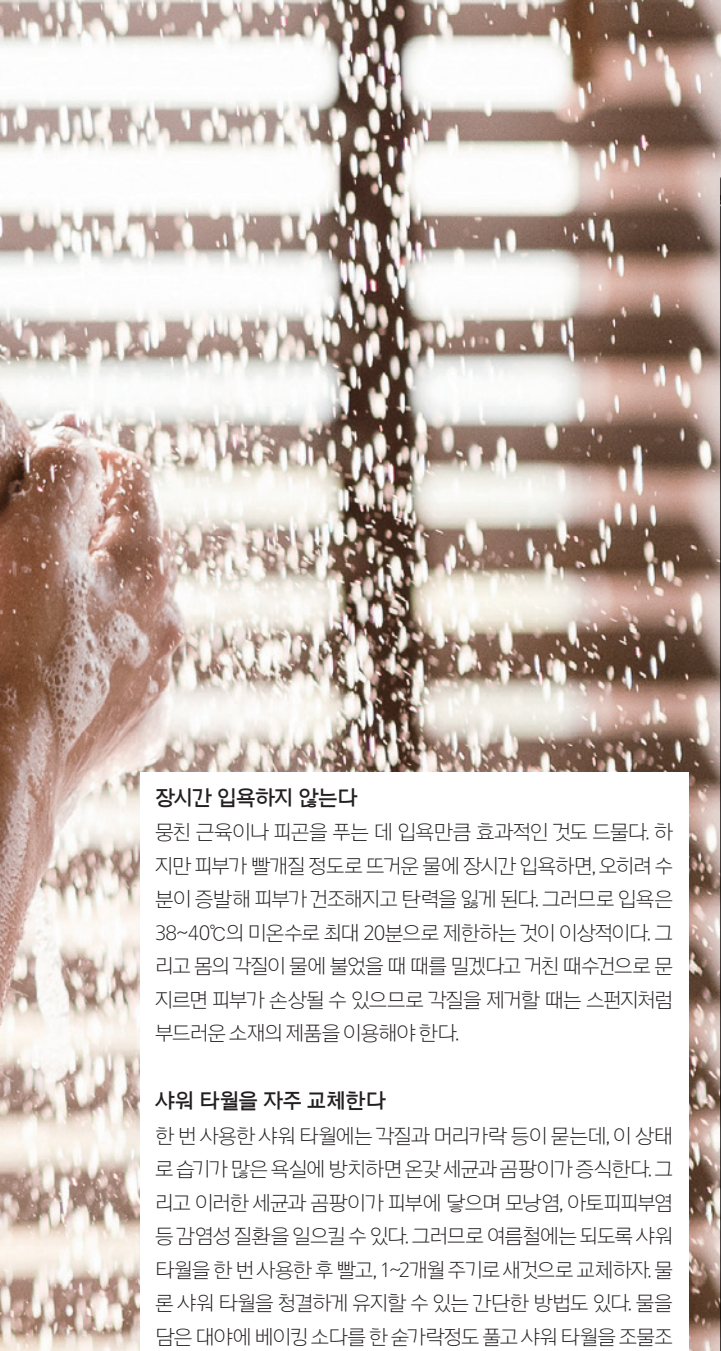
미온수로 샤워한다

찬물 샤워가 모공을 수축하고 손상을 줄여 피부를 탄력 있고 윤기 나게

가꿔준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운 여름철 냉수로 샤워하면 오히려 체온이 올라가 더 덥게 느낄 수 있다. 이럴 땐 물 온도를 40~42℃로 맞춰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지켜줘야 한다. 과하게 뜨거운 물로 30분 이상 샤워할 경우 건조증을 비롯한 피부 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샤워 시간은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샴푸는 샤워 전에 한다

샤워 후에 머리를 감게 되면 샴푸에 들어있는 파라벤, 알코올 등의 화학 성분이 그대로 몸에 남게 된다. 이는 모공을 막고 피부 트러블을 유발해 피부 손상의 원인이 된다. 막힌 모공은 피부 노화의 주범.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서는 샴푸와 린스, 트리트먼트 후 몸에 묻은 제품을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장시간 입욕하지 않는다

뭉친 근육이나 피곤을 푸는 데 입욕만큼 효과적인 것도 드물다. 하지만 피부가 빨개질 정도로 뜨거운 물에 장시간 입욕하면, 오히려 수분이 증발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입욕은 38~40℃의 미온수로 최대 20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리고 몸의 각질이 물에 붙었을 때 때를 밀겠다고 거친 때수건으로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각질을 제거할 때는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소재의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

샤워 타월을 자주 교체한다

한 번 사용한 샤워 타월에는 각질과 머리카락 등이 묻는데, 이 상태로 습기가 많은 욕실에 방치하면 온갖 세균과 곰팡이가 증식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균과 곰팡이가 피부에 닿으며 모낭염, 아토피피부염 등 감염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여름철에는 되도록 샤워 타월을 한 번 사용한 후 빨고, 1~2개월 주기로 새것으로 교체하자. 물론 샤워 타월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있다. 물을 담은 대야에 베이킹 소다를 한 숟가락정도 풀고 샤워 타월을 조물조물 손세탁한 후 5분 정도 담가놓았다가 전자레인지에 5분 정도 돌리면 끝. 완벽하게 소독된 샤워 타월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 말리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습제는 반드시 사용한다

젖은 샤워로 자극받은 피부는 보습 영양 로션을 발라 수분과 영양을 채워줘야 한다. 욕실에서 몸의 물기를 가볍게 닦은 후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에 바르는 것이 핵심. 특히 여름철엔 자외선을 받아 증가한 멜라닌 색소와 에어컨의 찬 바람이 피부의 수분을 증발시켜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되므로 피부 속부터 영양을 채워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샤워 전후로 물을 마시고 가습기를 이용하는 것도 수분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⑩

TIP

스킨유 딥오일케어

샤워 젤 & 로션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해 샤워 후에도 피부가 윤기와 탄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샤워 젤. 퍼프가 없어 부드럽고 풍성한 거품이 일어 사용하기 편하다. 로션은 끈적이지 않는 맑은 제형으로 피부에 촉촉히 스며들며 미백과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성분을 함유해 피부를 화사하고 탄력 있게 가꿔준다.
샤워젤 450ml 3만5천원.
로션 400g 3만8천원.



프리메라 베이비

아토틀리트 크림

피부가 건조해 생기는 가려움증과 자극을 완화해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고보습 크림. 크림 타입의 촉촉한 제형으로 샤워 후 물기를 가볍게 닦은 상태에서 바른면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든다. 하이포알러지 테스트와 피부과 테스트를 마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150ml, 3만8천원.



일리윤 콜라겐에센셜

바디워시 & 크림 인 로션

저분자 콜라겐이 온갖 먼지와 여름철 자외선, 찬 에어컨 바람 등에 지친 피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탄력이 차오르게 도와준다. 끈적이지 않고 산뜻한 제형으로 천연 동백 오일 추출물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고, 인삼원료가 강력한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 바디워시 400ml, 2만2천원. 크림 인 로션 350ml, 3만원.



여름철 찝찝한 Y존 관리법

후텁지근하고 끈적한 날씨가 이어지며 평소보다 더 불편하고 영 찝찝한 그곳. 여성의 Y존을 산뜻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photographer CHOI MIN YOUNG(제품)
editor KIM HEE SOO

당신의 Y존은 안녕한가요?

질염이나 방광염 등 Y존 관련 질환에 걸려 여성 전문 병원을 찾아간 경험이 있는 여성이 많을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여성이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Y존 질환에 걸릴 확률은 75% 이상이다. 평균 4명 중 1명꼴로 경험하는 셈이다. 이렇게 수많은 여성이 Y존 관련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그만큼 일상에서 쉽게 병균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성관계 시 생긴 상처를 통해 감염되기도 하고, 월경 전후 면역력이 낮아졌을 때 병균이 침투하기도 한다. 가장 흔한 질환은 질염으로 칸디다균이 원인이다. 여름철 후텁지근한 날씨로 인해 Y존의 습도가 올라가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형성되어 칸디다균이 번식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 질염에 걸리면 분비물이 늘어나고,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해 건강뿐 아니라 생활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Y존 질환을 방치하는 경우나 빈번히 재발하는 경우 만성질환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연약한 Y존은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Y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과 바람직한 관리법은 무엇일까? 더 이상 찝찝한 기분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당신의 Y존이 안녕할 수 있게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Y존 관리법을 소개한다.





PHOTOGRAPH: WWW.GETTYIMAGESBANK.COM

#1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는다

스키니 진 팬츠나 밀워길이긴 짧은 하의는 Y존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자극을 주고 공기가 통하는 것을 차단한다. 이는 Y존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 그러므로 통이 넉넉한 하의를 입어 Y존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급적 분비물을 잘 흡수하는 면 속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다.

#2 피임 기구를 사용한다

남성의 쿠퍼 액과 정액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질 내부에 들어오면 질의 pH 농도 균형이 깨질 수 있으며, 마침로 상처가 생기면 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진다. 콘돔은 피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지만, 성병을 예방하고 병균이 질 내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3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을 기른다

여성은 남성보다 요도가 짧아 상대적으로 방광염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 소변을 본 후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 항문에 있던 대장균 등이 요도로 침투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소변을 본 후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은 질염은 물론 방광염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좀 더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4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사우나 이용을 자제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사우나는 Y존 관련 질환이 발생하는 데 최적화된 장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각종 곰팡이와 세균이 질 내로 침투하기 쉽기 때문이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온천이나 찜질방, 사우나 등 공공 목욕 시설 출입은 삼가는 것이 좋다.

#5 여성 청결제를 사용한다

여성 청결제를 매일 사용하는 것은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일주일에 2~3회 과하지 않게 사용하면 Y존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Y존에서 냄새가 나거나 분비물이 과도하게 나올 때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면 유해균을 억제하고 방어 장벽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는 pH 농도를 가장 건강한 상태인 pH 3.5~4.5로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⑩**

TIP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한 약산성 여성 청결제다. 분비물과 냄새를 억제하고 피부가 예민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피부 장벽 보호 기능까지 신경 쓴 제품이다. pH 4.5로 여성 Y존의 약산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부드러운 거품은 민감한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주며, 속향의 프레시함과 부드러운 로즈향이 더해져 한층 더 싱그럽고 기분 좋은 향까지 느낄 수 있다. 사용 후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마무리되며 산뜻한 데다 브라이트닝 테스트로 한층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피부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여성 청결제다.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
200ml, 3만1천원.



@rabbit_zzu



♡ 👁
 최근 피부가 점점 더 좋아지는 중.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운데, 이런 때일수록 피부 관리 더 열심히 해야죠! 저랑 같이 피부 홈케어, 피부 관리해요!

@chaeni_gram



♡ 👁
 집에서 간편하게 각질을 제거하고 빛나는 피부를 얻어보아요.

@daily_su.a



♡ 👁
 요즘 유튜브에서 핫한 홀리추얼 패드를 써봤는데, 간단하게 닦아내기만 해도 각질이 정리돼 편하더라고요. 피부결 정도는 기본이고, 꾸준히 사용하면 물광 피부로 만들어준다니 피부 관리실에서 관리받은 듯한 물광 피부, 집에서 셀프로 만들 수 있어요~

@merryzzy



♡ 👁
 앞으로는 피부결 정도가 필요할 때 홀리추얼 래디언스 리선편이싱 필 꺼내야겠다 화장대 서랍에 정어놔야하는 아이템!

생생한 제품 평가

홀리추얼 래디언스 리선편이싱 필을 체험해 본 품평단 10인의 솔직한 소감.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KIM HEE SOO

@e_k.closet



♡ 👁
 휴가철에 들고 다니기에 딱 좋은 홀리추얼 래디언스 리선편이싱 필. 1회분씩 개별 포장되어 위생적이고 씻어내지 않아도 되니 간편해서 좋구나!

@effyismyownmuse



♡ 👁
 홀리추얼 래디언스 리선편이싱 필을 쓰는 중, 요즘 피부에서 광이 난다는 말을 듣는데, 이게 다 홀리추얼 덕분 아닐까? 필링 제품은 사용 후 피부가 건조한 게 가장 큰 단점인데, 사용도 간편하고 사용 후 피부가 촉촉해 메이크업도 잘 먹고 아주 만족해요.

@rohmiyoun



♡ 👁
 피부결 정도할 때 쓰기에 참 좋은 홀리추얼! 요즘처럼 더운 날 하루 종일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면 답답한데, 집에 와서 세안하고 1 스텝으로 물기 없는 얼굴에 한 번씩, 2 스텝까지 다시씩 닦아내면 따로 닦도 할 필요도 없고, 넘 좋다.

@aromieunsun



♡ 👁
 필링 후 골든 타임까지 확실하게 챙기기!! 1제로 가볍게 각질을 정리하는데 부드러워서 사용감이 아주 좋음. 그리고 2제로 수분 보충하며 보습! 특별한 날을 앞두고 이걸로 관리하면 피부가 속부터 건강하고 맑아지는 듯하다. 메이크업도 잘 먹음.

@heavenpark



건강한 피부를 위해선 각질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불필요한 각질이 남아있으면 피부 재생 주기도 점점 늦어진다고 해요. 간편하게 필링 케어를 할 수 있는 홀리추얼의 2스텝 필링 패드는 전문가의 손길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답니다.~)

#물광필링
#피부결정돈
#광채지속

홀리추얼 래디언스 리설페이싱 필. 12매, 4만8천원. 단 1회 사용만으로 피부에 즉각적인 윤기와 매끄러움을 선사하는 2-Step 필링 제품.

HOLITUAL

Holistic Rituals for Skin Wellness



Radiance Resurfacing Peel

Professional 2-Step Peel Treatment

12 treatments

@withelf



인생 각질 제거제! 세안 후 토너를 바르듯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달걀처럼 정말 매끈해져요.

12 TREATMENTS



한낮의 낭만

따사로운 별을 찢며 술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길어진 낮을
즐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photographer LEE SEOK YEONG
editor GO YEONG JIN



봄

서촌 한옥 카페일 바 '참'의 오너가 두 번째 공간 '봄'을 오픈했다. 우드 소재 가구와 초록 식물이 어우러진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다. 이곳은 곡류 위주의 술 대신 제철 과일을 다양하게 활용한 칵테일을 선보인다. 사과로 만든 '칼바도스'를 비롯한 브랜드, 주정 강화 와인 등이 주를 이루는데, 식전주로 통하는 '스프리츠'나 따서 먹는 컵 타입 음료처럼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주류도 많다. 낮에는 이와 함께 샌드위치나 샐러드 플레이트를 곁들이기 좋다. 농장에서 수확한 허브와 과일 등의 작물이 칵테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메뉴를 확대해감으로써 '팜 투 바(farm to bar)'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5 1층 **영업시간** 화~토요일 15:00~02:00, 일요일 15:00~01:00, 월요일 휴업 문의 @pomme_cham

RECOMMEND

샬뤼트리 플레이트
프랑스 정통 스타일의 '메종'에서 들어온 샬뤼트리를 담았다.

핑크컵

레모네이드나 진저에일에 딸기와 민트, 오이를 넣어 적당히 달고 시원하다. 현재 한국에 수입되지 않아 그 맛을 최대한 복각해 봄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RECOMMEND

부라타 치즈 & 과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린 생 부라타 치즈를 제철 과일과 함께 맛볼 수 있는 플레이트.

파셉션

사과, 청포도, 절인 백도 등의 새콤한 과실 향을 시작으로 은은한 꽃향기까지 느껴지는 내추럴 와인. 꽃이 만개한 듯한 레이블도 매력적이다.



nvnv

'nvnv'는 유럽 가정집의 분위기를 재현한 공동의 와인 바다. 개주얼 컨셉트의 와인 바가 주로 서울 중심부에 밀집해 있다는 데 아쉬움을 느낀 대표가 '전에 없던 새로운 공간'을 모토로 기획했다. 취급하는 와인의 종류는 다양한 편이다. 디자인도 호기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 색깔이나 레이블을 기준으로 와인을 들여놓기도 한다.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브런치 스타일 메뉴와 파스타, 저렴한 스몰 디시를 맛볼 수 있는데,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은 각종 치즈류도 함께 판매 중이다. 에멘탈 치즈를 연상시키는 구멍 뚫린 의자, 빈티지 카펫 등 갖가지 소품을 활용해 공간을 재치 있게 꾸몄다.

주소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84길 52 2층
영업시간 수~일요일 16:00~22:00, 월·화요일 휴업 문의 @nvnv.seoul



RECOMMEND
치킨 할라피노 & 난자완스 바오
 부드러운 닭 다리살과 매콤한 할라피노 처트니, 그리고 육즙이 풍부한 난자완스 파티에 짭조름한 시그니처 소스를 더했다. 입맛을 돋우는 용도로 하나씩 먹기 좋다.

오이 칵테일
 청량한 맛의 중국 고량주 '강소백'을 베이스로 탄산수와 오이 슬라이스를 넣어 만들었다.

스몰디쉬빅쇼

CNP 푸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 '스몰디쉬빅쇼'가 가로수길에 문을 열었다. 일식, 중식, 한식으로 구성된 스몰 디시와 함께 맥주와 고량주, 칵테일을 곁들일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국적의 아시안 음식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마치 쇼를 보는 듯한 인상을 주어 'big show'라고 이름 붙였다. 이곳의 술은 어떤 음식과도 궁합이 좋다. 특히 강소백과 연대 고량주를 베이스로 만든 네 종류의 칵테일은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한 모금씩 마시기에 제격이다. 맥주는 작은 병으로도 판매하고 있어 점심 식사와 곁들이기에도 부담이 적다. 다양한 메인 요리와 더불어 오렌지 젤리, 채스민 크림 캐러멜 푸딩 같은 간단히 디저트류까지 맛볼 수 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62길 41-20 1층
 영업시간 매일 12:00~22:00(브레이크타임 15:30~17:00)
 문의 @smalldishbigshow



휴고 도산

와인과 함께 현대 유럽의 식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는 '휴고 도산'. 프랑스식 조리법을 베이스로 한 식사류부터 샌드위치, 디저트까지. 다루는 메뉴의 폭이 넓어 카페, 와인 바, 비스트로 등 어떤 컨셉도 충분히 소화해낸다. 컨벤셔널 와인과 내추럴 와인을 취급하는데, 보디감이나 산도 등 와인 고유의 개성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는지 면밀히 따진 후 들어온다. 해가 잘 드는 낮에는 밝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낮술을 즐길 수 있는 반면, 저녁에는 조명이 어두워지고 빠른 비트의 음악이 깔리며 전혀 다른 공간이 된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와인과 함께 즐기고 싶을 때 언제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다. ①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49길 31 106호
 영업시간 수~일요일 12:00~24:00(브레이크타임 15:00~17:30), 월~화요일 휴업
 문의 @hugo_dosan



RECOMMEND
한치 & 케이퍼 오일 파스타

깨끗하게 손질한 한치를 마늘과 볶아 감칠맛을 높였다. 짭짤한 케이퍼와 타임으로 마무리해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난다.

핀카 엔데라 템프라니오

과실미와 색상을 얻기 위해 낮은 온도에서 침용 과정을 거쳐 만든다. 붉은 과일의 아로마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적당한 산도가 특징이다.



이달의 필수템 미리보기

에디터가 간간하게 고른 8월의 강추템.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KIM HEE SOO

프리메라 베이비 아토티리트 크림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과 자극을 완화하여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보습 크림. 150ml, 3만8천원.



설화수 진설수
적층 성분에 건강, 마고 성분을 더해 피부에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스킨. 125ml, 12만5천원.



설화수 진설유액
적층 성분에 해송자유 성분을 더해 윤택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에멀전. 125ml, 14만원.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싱글 엑스트랙트 에센스 인텐스
100일 자연 발효 속성자로 완성된 100% 향산화 진액을 담은 속영양 안티에이징 에센스. 120ml, 17만원.



헤라 하이드레이팅 레디언스 프라이머
SPF 30/PA++ 수분감 넘치는 글로우 텍스처가 다음 단계의 메이크업 룩을 더 예쁘게 연출해주는 쉐프림 프라이머. 35ml, 5만5천원.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건강한 피부 바탕을 만들어주는 윤조에센스에 석류 성분을 더해 향산화 효능을 강화한 필수 안티에이징 퍼스트 에센스. 120ml, 17만원.



Free & Free

Y존 고민 케어 및 장벽 보호 세정
약산성 프로바이오틱스* 여성 청결제



*락토바실러스 발효용해물



HERA

HYDRATING
RADIANCE
PRIMER

SPF 30 / PA++

HYDRO GLOW
MAKEUP-READY